



## “용서...”

### 고개숙인 최희섭 “꾸지람 들었지만 흥가분 몸 잘 만들어 ‘V11’ 노력”

“선수단과 팬, 구단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졌다. 용서를 받기 위해 반성하면서 노력하겠다”  
 잠적 파문의 주인공 KIA 최희섭이 1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들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단, 팬, 코칭스태프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고 입을 연 최희섭은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KIA에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할말이 없다. 너무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희섭은 ‘부정적인 생각’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희섭은 “성격이 활발하거나 얘기를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다. 프로선수들 팬들의 질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복합적으로 야구를 하기 힘든 선까지 이르렀다.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모든 게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원래 인터넷도 잘 안보는 데 많이 봤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구단의 설득과 야구에 대한 간절함으로 복귀를 결심했지만 최희섭의 ‘그라운드 복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희섭도 용서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최희섭은 “웃을 벗은 지 100일 정도 됐다. 오늘 처음 유니폼을 입었다. 굉장히 기쁘고 유니폼 입고 열심히 뛰고 싶은 마음도 많았다. 지금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감독님과 선수단이 한 번 더 믿어주고 기회를 주신다면 별반을 것은 받고 훈련할 것은 훈련해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게 내 욕심일 수도 있다. 내가 감독님이라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 같다. 하지만 기회를 주고 믿어주시면 몸을 더 잘 만들어서 11번째 우승을 내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 노력하고 싶다. 그 기회가 빠르면 좋겠지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면서 야구 실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못해...”

### 짜늘해진 선감독 “프로답지 못한 행동 자숙 운동이나 하고 있어라”

‘용서받지 못한 자’ 최희섭의 2012시즌은 어떻게 될까?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최희섭이 18일 마침내 입을 열고 세상과 소통을 시작했다. 최희섭은 기자회견을 통해 심경을 밝힌 뒤 곧바로 선동열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진짜 복귀’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 “복귀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던 선 감독은 18일 최희섭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짜늘한 반응을 보였다. 선 감독은 “죄송합니다”라는 최희섭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칠게 말을 쏟아내며 “프로선수 답지 못했다. 복귀했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숙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라”고 선을 그었다. 선 감독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지만 최희섭은 오히려 마음이 흥가분하다는 반응이다. 최희섭은 “감독님께 혼이 많이 났다.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애리조나로 달려가서 사죄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지은 죄가 있어서 캠프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 감독과의 통화 이후 최희섭은 구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로 운동을 시작했다. 전날 심한 설사로 고생을 했지만 점심도 거르고 나흘로 러닝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다. 최희섭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은 동료들이다.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지 기반도 동료들이다. 최희섭은 “어찌됐든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팀이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을 때 내 탓 같았다. 시즌 중에도 내가 잘 치면 팀이 지는 등 내가 주장으로서 첫 단추를 잘못 꿴 거라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장에 죄인 같은 심정으로 나왔다”며 “결국은 내 잘못이다. 선배·후배로서 의지하고 기대했을 텐데 지금 가장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복귀를 결정한 이날 최희섭은 주장 차일목에게 전화를 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차일목은 “마음 잘 다스리고 돌아오시라”면서 선배의 마음을 짐을 덜어주었다. 이순철 수석코치도 최희섭의 지원군으로 나섰다.



최희섭은 “수석코치님과도 통화했다. 베테랑들과 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한다. 나도 따로 선배들에게 전화를 해서 용서를 빌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희섭은 계속해서 악재와 불안한 심리 상태로 야구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 구단 내부에서도 제한 선수 및 임원의 탈퇴 형태로 최희섭의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긴박했던 이를,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김조호 단장의 설득 끝에 최희섭은 다시 사람들 앞에 섰다. 최희섭은 “어차피 언젠가 야구는 그만 두게 돼있다. 이렇게 그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트레이드가 됐다면 큰 후회를 했을 것 같다. 언제든 다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 당장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섭의 2012시즌은 선 감독과 선수단의 진정된 용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잠적 파문의 주인공 KIA 최희섭이 1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복귀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풍운아’ 김병현 넥센행

### 16억에 입단 계약

풍운아 김병현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무대에 선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는 사이드암 투수 김병현(33)을 계약금 10억원, 연봉 5억원, 옵션 1억원 등 총액 16억원에 영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99년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입단한 김병현은 보스턴 레드삭

스, 콜로라도 로키스, 플로리다 말린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에서 9시즌 동안 394경기에 나서 54승60패, 86세이브, 평균자책점 4.42를 기록했다. 김병현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선수 시절이던 2001년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시리즈 무대에 섰다. 또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두 번째로 월드시리즈 챔피언 반지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의 실력과 경험이 우리 팀에 유·무형으로 나타나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는 “2009년부터 김병현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했다”며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현 영입은 넥센을 더욱 강한 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월드시리즈 챔피언 반지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의 실력과 경험이 우리 팀에 유·무형으로 나타나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추신수 56억 ‘연봉대박’

### 클리블랜드 재계약

미국프로야구(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는 추신수(30)가 연봉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몸값에 재계약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MLB.com)는 추신수가 490만 달러(약 56억원)에 클리블랜드와 올해 연봉 협상을 마쳤다고 18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연봉 397만5000달러(당시 약 44억원)에서 92만5000달러 인상된 것으로,

애초 올 연봉으로 예상됐던 430만 달러(약 49억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추신수는 지난 15일 2년 연속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연봉 조정 신청서를 냈으나 내달 2일 연봉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계약을 마무리 짓는 데 성공했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의 올해 연봉으로 470만 달러를 제시했고,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스타 보라스는 525만 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는 지난해 읍주 윤전 파문, 손가락



수술, 옆구리 부상 등이 겹쳐 풀타임 메이저리거가 된 2008년 이래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시즌 성적은 타율 0.259, 홈런 8개, 36타점으로 초라한 편이다. 하지만 클리블랜드는 추신수가 타율 0.300과 20홈런·20도루를 동시에 작성했던 2009~2010년처럼 올해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추신수는 올해 주전 우익수와 중심 타자로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양신탄 종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족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자동차경비일체, 빗대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리 일체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명 주차격정 끝

###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얼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펄싱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양 및 순환교체 펄싱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		